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당시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

보도시점 2023. 11. 7.(화) 11:00 < 11.8.(수) 조간 > 배포 2023. 11. 7.(화)

자유무역지역, 30년 후 밑그림을 그리다

- 제1회 자유무역지역(FTZ) 혁신전략 포럼
- 디지털자유무역지역, 인공지능(AI) 기반 도심형자유무역지역 도입 등 정책 방향 논의

산업통상자원부(장관 방문규, 이하 산업부)는 11.7.(화) 코트야드메리어트 남대문에서, 제1회 자유무역지역(FTZ)* 혁신전략 포럼을 개최하고 산업·지역전문가, 기업인 등과 함께 향후 30년 간의 자유무역지역 미래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.

* Free Trade Zones: 수출·물류 확대, 외투 유치 등을 위해 자유로운 제조, 무역활동 등을 보장하는 지역, 국내에 위치하지만 자유무역지역법, 관세법 등에 따라 관세유보 혜택 부여

이번 포럼은 자유무역지역 도입 후 50여년간 성과를 재조명하고 국내·외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면서 30년 후 자유무역지역의 밑그림이 될 '자유무역지역 제도혁신 전략' 정책연구용역 중간 보고와 산업·지역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패널토의(공청회), 입주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자유무역지역 수출역량 강화 방안 및 탄소중립 관련 환경·사회·투명경영(ESG) 수출전략 특강도 함께 진행하였다.

공청회에서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새로운 방식의 수출특구로의 전환을 위해 ①전통 제조업 중심에서 첨단산업으로의 전환 ②산단형·공항형·항만형 자유무역지역의 융복합화 ③자유무역지역 내 산업인프라 고도화·그린화 등이 선행되어야 할 과제로 논의되었다.

또한, 향후 30년을 대비하기 위해 단계별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
❶(1단계) 디지털자유무역지역 및 융합형(산단형+공·항만형)자유무역지역 도입
❷(2단계) AI기반 '글로벌 도심형자유무역지역 조성(서비스·R&D수출)'
❸(3단계) 100% 수출기업 전용공간인 '수출전용파크' 구현 및 미래기술 접목 단지 고도화 추진 계획 등이 제시되었다.

산업부는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, 전문가 등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며, 합포만의 기적을 기억하면서 지구촌 으뜸 자유무역지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.

담당 부서	경제자유구역기획단 혁신지원팀	책임자	과 장	박학희 (044-203-4630)
		담당자	사무관	이배화 (044-203-4632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참고 | **「자유무역지역(FTZ) 혁신전략 포럼」 개최 계획**

1. 포럼 개요

○ **(목적)** 30년 후의 자유무역지역 발전방안 모색

○ **(일시)** ‘23.11.7(화) 14:00~16:30

○ **(일시)**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남대문 3층 한양1홀

○ **(참석)** 산업부(혁신지원과장, 지역별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), 산업기술진흥원, KOTRA, 테크노파크, 입주기업 임직원, 전문가 등 100여명

2. 행사 일정안

○ **(공청회) ‘FTZ 제도혁신 전략 연구용역’ 중간 보고** 및 패널토의

○ **(특 강)** ❶**물류·통관 제도** 등 자유무역지역 수출역량 강화 방안
❷**탄소중립 관련 ESG 수출전략**

< 자유무역지역 혁신 포럼 일정안 >

시간	일정	내용	비고
14:00~14:05	개회사	모두 발언	산업부
14:05~15:05	**공청회**	자유무역지역 제도혁신 전략 중간 보고 및 패널토의*	산업부 (용역기관)
15:05~15:35	**특강①**	자유무역지역 수출역량 강화 방안	강원대 김철우 교수
15:35~16:05	**특강②**	탄소중립 관련 ESG 수출전략	한국생산성본부 김상일 센터장
16:05~16:25	질의응답	공청회 및 특강 관련 Q&A	참석자
16:25~16:30	폐회사	마무리 발언	산업부

* 좌장 : 양준모 연세대 교수
패널 : 정진섭 산업정책연구소 이사, 송백훈 동국대 교수, 고석찬 한국지역개발학회 부회장